

이는 반드시 比較檢 討되어야 할 점이다 製作期는 대략 羅末麗初가 아닐까 推定한다.

新羅柱塔片

黃 壽 永

一

昨年十一月下旬의 일이다. 경주 半月城 古物商 昔氏로부터 塔을 四面에 陽刻한 石柱가 市內 民家에 있다고 하기에 入手를 부탁하여 두었다 그 후 數日이 지나 運搬된 現品을 보니 높이가 약 六十cm에 불과한 方柱의 頂上部分으로서 一面은 全破되었으나 他三面的 彫刻에는 큰 傷處가 없었다. 더우기 즐겁게 생각한 것은 三面的 塔形이 서로 高低의 差는 있으나 모두 相輪部를 보이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古式을 전하는 貴重한 資料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 후 이 石柱片은 石窟庵 工事務所로 옮겨져서 자세히 조사되었으므로 이 곳에 소개하여 둔다. ①

二

그다지 치밀하지는 못한 花崗石으로서 方形底面의 現尺은 一邊이 二七·五cm인바 各面은 上部에 이듬에 따라 遞減되어



를 갖고 있다. 그리고 頂上部 또한 方形인바 그 中央에 圓形突起가 있어 그 徑이 九cm 高가 三cm이다. 이 같은 頂上의 圓形突起로 보아서 元來 그위에 어떠한 屋蓋形 別石이

없혀있었던 것으로 推定할 수 있는 바 이 같은 形式은 現在 慶州博物館에 移管되어 있는 栢栗寺境內原在의 六角石幢(異次頓供養碑 新羅 憲德王十年 西紀 八一八年)의 그것과도 同一하다. 그리하여 塔婆가 二種別을 막론하고 모두 臺座 내지 基壇部를 具備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四角塔柱 또한 위에서 推定한 바 屋蓋別石과 더불어 그 下端에는 반드시 基石이 있었을 것으로 推定되었다.

三

現在 남아 있는 三面에는 層級數의 差別이 있는 바 꾸어 말하자면 塔高가 서로 다른 多層方形塔이 各一基씩 조각되어 있다. 그중 아마도 가장 높은 一塔이 이 塔柱石의 正面이라고도 推定되는 바 이 高塔을 中心으로 하여 그 左右의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中央塔: 二層의 塔身部와 그위에 相輪의 各細部가 남아 있다. 最上層의 塔身에는 兩隅柱가 있고 屋蓋의 層級形 받침은 三段이며 檐端은 直線으로 그 兩端에 風鐸이 一個씩 달려있으며 屋蓋落水面과 轉角의 短促함이 注目된다. 相輪으로서 는 아래로부터 먼저 露盤의 上面이 넓은 板狀을 이루고 그 兩끝에 小風鐸이 달려있다. 이 같은 盤形은 金屬製 正方形의 것도 있어서 그 四隅에 小孔이 中央에 大孔이 있어 각기 風鐸과 檨柱를 위한 것인바 近年의 調査例로서는 慶北漆谷 松林寺 五層塔위의 方形鐵盤을 들어야 할 것이다. 또 이 같은 鐵盤의 存在는 일찍부터 記錄에 보이고 있는 바 有名한 新羅 皇龍寺九層木塔에 있어서 그 높이를 「鐵盤已上東十二尺已下一百八十三」(三國遺事卷三)이라고 한 것이다.

露盤 위에는 그다지 높지 않은 伏鉢이 있고 다시 그위에 仰花가 있는 바 이 仰花는 方形身部위에 立華形裝飾이 外反되어 있다. (이 같은 金銅屬製 遺品으로서 는 上揭한 松林寺塔의 것이 남아 있다) 또 仰花 위로는 檨柱에 貫通되어 있는 相輪 五個가 重疊되었는 바 이 곳에서 注目할 것은 五輪이 아래로 나려움을 따라 漸大하고 또 各輪마다 小風鐸이 달려있어 마치 五輪 兩端이 連結된 것 같이 보이는 點이다. 그런데 다시 注目되는 것은 이 같은 五輪頂部에 놓인 盤形으로서 그 下周에는 작은 圓形裝飾物이 달려있는 바 이것은 寶蓋이라 할 것이다(이 같은 形式의 것으로서는 年

代가 降下하는 月精寺塔 淨岩寺塔 등의 金屬相輪에서 類例를 볼 수 있다) 다시 그 위에 水煙이 있는 바 등갈고 그 周緣에는 작은 圓形紋樣이 둘러 있으며 頂上에 이르러서는 둥근 龍車와 寶珠가 있고 이들을 꿰고 擦柱는 頂上에 이르러 한층 가늘어지고 말았다. 全高五六cm로서 그 中相輪部만은 塔頂으로부터 四一cm에 달한다. 樣式으로 보아서 相輪만은 金屬製를 模한 것으로 해석된다.

右塔..이 塔이 三塔中 가장 낮아서 現存하는 部分은 相輪의 上半部이다. 相輪二個와 그 위의 寶蓋와 立葉形 水煙과 龍車寶珠가 남아 있다 現高三五cm.

左塔..下部와 左上部가 缺失되고 있으나 塔身의 最上層 一部와 相輪部의 完形이 남아 있다. 相輪의 形式과 길이는 中央塔과 同一하다 全高四七cm(以上 三塔相輪樣式은 경주南山塔谷佛岩의 磨崖雙塔의 것과 比較할 만하다 「慶州南山佛蹟」參照).

四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塔頂만이 남은 이 方柱는 그 밑에 塔身部가 연숙되어 直立形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亡者의 資福을 위한 柱塔으로서의 造形으로 보고자 한다. 이같은 柱塔形式은 우리나라에서는 既知唯一의 稀貴한 것이나 經文②에도 보이는 바이며 또 日本같은 곳의 現存作品으로 ③서 傘塔 또는 相輪栱④같은 것이 이것과 比較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方形石柱에 塔形이 浮刻된 遺品이 慶州에 數個 남아 있는 바 모두 高約三四—四八cm의 斷片뿐이다. 그 中 이들과 같이 塔頂部를 가진 것으로서는 現在 慶州博物館에 移置된 一石이 있는 바 元來 栢栗寺에서 옮긴 것으로서 塔身三層과 相輪의 下半部만이 남아 있다(이 頂上部들의 存在로서 柱塔二基의 存在가 推定된다) 다음에 栢栗寺前庭에 는 이와 恰似한 石物二個가 쌓아올려 있는 바 細部에서 약간의 差異는 있으나 方柱各面에 同一樣式의 塔身部가 陽刻되어 있는 點은 모두가 同一하다. 그리하여 이들 計三石과 이 곳에서 소개하는 一石이 서로 有關한 것으로 보이나 單一柱塔의 部片으로 斷定하기는 어렵다. 이에 對하여서

는 따로 세밀한 復元考察이 있어야 하겠으나 各石이 모두 柱塔을 이루던 斷片으로서 모두가 栢栗寺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新例 一石 또한 栢栗寺에서 멀지않은 慶州市 東川里 瓢岩下 公營成氏宅에 傳來하던 것이라고 한다. 끝으로 이같은 柱塔과 栢栗寺와의 關係인 바 上記한 바 六角石幢의 同寺傳來에서 미루어 追善供養을 위한 造形으로서 아마도 石幢과 거의 同代인 新羅下代로 推定하여 두고자 한다. 栢栗寺後嶺에는 異次頓墓⑤가 오늘날도 傳하여오며 同寺前庭 岩面의 磨崖層塔의 存在 등 關係 遺物 遺蹟의 調査가 綜合되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七月七日).

註

① 本誌 四卷十二號(一九六三年 十二月) 뉴스欄 參照. 이石柱入手를

前後하여 石窟庵工事現場에서는 四天王北 寶塔이 出土되었으며 또 海雲臺觀光호텔마당에서 石造小塔이 發見되었다(本誌申榮勳氏論文 參照)

② 十誦律第五十六(望月..佛敎大辭典 塔條)

③ 日本 般若寺傘塔 

④ 日本 叡山 또는 日光山等に 建立되어 있는 바 이들은 相輪만을 세운 柱塔으로서 無垢淨光陀羅尼經에 의거하였다.

⑤ 異次頓傳說이 慶州金剛山頂과 그 西麓인 栢栗寺에서 墳墓와 供養塔 碑의 造營을 이루었다고 推定하여 石幢記文中의 「葬屍北山」이나 海

東高僧傳의 撰者 覺訓이 釋法空傳略에 「豫遊東都。登金剛嶺。見狐墳短碑。概然不能自止」이라는 文句를 다시 注目하는 바이다 (末松保和..「異次頓傳說의 發展」新羅史의 諸問題所收)。

恭齊의 旋車圖

孟 仁 在

지난 四月初 全南에 갔을 때 海南邑 蓮洞里 尹泳善氏宅에서 恭齊 尹斗